

2023.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Vol. 1

ISSUE FOCUS



다시 대학에 간다면...?

WHAT
edition

ISSUE



- > 대학생들에게 물었다. 대학의 평생교육,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 > 재학생으로서, 무엇을 추천하고 싶은가?
- > 졸업생으로서, 무엇을 배우고 싶은가?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의 핵심을 꼽자면,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 강화이다. 고등교육기관이었던 대학이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은 이미 시작되었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일반 성인학습자에 대한 대학자원과 혜택 공유가 한정적이다. 지역의 성인학습자와 대학의 자원을 연결하기 위해 다각적인 탐색이 필요한 시점이다.

그 탐색의 시작으로 현재 대학의 주체이자 가까운 미래의 평생교육 주체가 되는 대학생들의 생각을 들어보고자 한다. 이번 호에서는 대학생들이 생각하는 소속 대학의 평생교육 자원 활용 가능성을 살펴본다.

- 조사 대상 : 만 19~29세 성인(대학생) 144명
- 조사 방법 :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 온라인 패널조사
(대학내일 20대 연구소)
- 조사 기간 : 2023. 5. 30.(화) ~ 6. 1.(금)
- 조사 참여자 : 여성 114명(79.2%)/남성 30명(20.8%), 평균 연령 22세

01



전공을 떠나서 대학생들이 좋아하는 교육내용은 ‘커뮤니케이션, 외국어, 빅데이터’ 등 미래 일, 그리고 ‘연애학, 자기관리, 글쓰기’ 등 일상에서 유용성이 높은 주제이다. 선호하는 수업의 이유는 주제의 유용성 외에도 교수의 전문성과 수업방식의 효과성이다. 특히, 선호하는 수업방식은 지식의 적용성과 확장성을 증대하는 프로젝트와 실습이다.

대학생이 좋아하는 과목 '인문교양, 실용사회과학' 분야 '교수전문성, 적용성, 확장성' 높은 수업 선호



일상생활과 일터에서 유용한 주제의 수업 선호

응답한 대학생들은 대학 수업에서 인문교양 과목에 대한 호감도가 높았으며, 인문교양 (39.6%), 미래기술 디지털 (30.1%), 사회과학 (25%), 기타 (6.9%) 과목 순으로 호감도가 높았음

즉, 철학, 미학, 연애학, 심리학, 도전과 창조, 커뮤니케이션, 자기 관리, 글쓰기, 외국어, 고전문학, 타문화 이해, 영화 감상 및 비평 (이상 '인문교양'), 디지털 영상 콘텐츠 제작, 빅데이터, 인공지능, 컴퓨팅 사고, 시스템 설계(이상 '미래 디지털 기술'), 소비자 심리와 행동, 광고·마케팅, 사회학, 경영학, 국제사회(이상 '사회과학') 등 과목에 높은 흥미를 보임

다양한 경험 제공으로 생생한 지식을 축적하게 해주는 수업

첫 번째, 대체 불가능한 희소성과 전문성을 가진 수업

우리 학교 학과에만 있는 유일한 수업, 심지어 비용 부담 없이 경험해 볼 수 있는 수업, 특정 분야의 전문권위를 가진 자랑스러운 교수님 수업

두 번째, 지식과 기술을 실제 적용해보는 수업

지식과 기술을 실제 적용하거나 활용하는 수업, 다양한 실습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 현장 경험을 제공하는 수업

세 번째, 지식의 확장이 일어나는 수업

직접 기획·발표로 일련의 활동 과정부터 최종 결과물까지 얻어내는 프로젝트형 수업, 팀원들과 소통하며 의견을 조율하고 새로운 아이디어를 공유하는 팀 활동 수업, 정답이 없고 서로의 의견과 관점을 나누며 더 넓은 사고를 할 수 있게 했던 토론 수업, 강의에서 배운 내용을 현장에서 직접 탐방하고 체험하며 생생한 지식으로 만드는 수업

02



대학생 자녀가 성인학습자 '부모'에게 추천하는 우리 대학 학습자원

대학생 자녀가 추측하는 성인학습자로서 '부모'가 다시 선택할 가능성이 높은 대학 전공은 교양과 삶의 질을 높이는 문화예술분야이다. 현재 대학 교육과정에서 성인학습자 '부모'에게 추천하고 싶은 수업은 주로 '대학기초교양' 강좌다. 교육방법은 일반 강의형과 토론, 그리고 현장활동 형태를 추천한다. 성인학습자 '부모'가 좋아할 대학공간은 도서관, 연구실, 실습실 등 학습공간일 것으로 추측한다.

대학생 자녀들이 본 성인학습자 ‘부모’의 잠재적 욕구



성인학습자 ‘부모’가 대학을 가는 이유

새로운 배움에 대한 욕구(45.1%), 젊은 시절 못다 한 배움의 욕구(35.4%), 새로운 직업능력개발과 직무향상교육 그리고 재교육(9%)임

2가지 이유가 대표적인데, 1)은퇴 후 새로운 인생 2막 준비를 위해, 그리고 2)현재 직업 또는 역할을 잘 수행하기 위한 것. 소수 의견이기는 하지만 과거 전문학위 없이 입직이 가능했던 분야(간호학, 보육학 등)에서 실무 경험을 먼저 쌓고 이론적 전문성을 보완하고자 하는 욕구도 있음

성인학습자 ‘부모’가 전공하고 싶은 분야

순수한 흥미와 관심 분야(48.3%), 희망 진로/직업 전환 분야(15.9%), 현재 직업 관련 분야(13.8%), 실생활 활용분야(11%), 기타 (2.8%)임

구체적으로 서술되는 내용을 보면, 삶을 풍부하게 즐길 수 있는 문화예술분야(문학/문예창작, 미술/음악/디자인, 미디어/영상 콘텐츠 제작 등), 과거 경제적 부담 또는 직업활동에 대한 확신을 갖지 못했던 예체능분야, 현재 업무의 직무능력향상 관련 분야(경영학, 컴퓨터 및 디지털공학/빅데이터/AI 프로그래밍 등)가 강조되고 있음

그 외에도 일상생활에서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는 분야(건축/인테리어, 한의학/약학/간호학, 심리학, 언어학, 영어, 컴퓨터/디지털 공학)도 중요하게 언급됨

대학생 자녀들이 성인학습자 ‘부모’에게 추천하는 대학의 교육자원



추천하는 교육내용

변화하는 사회에 누구나 갖추어야 할 기본 소양교육, 주로 '문화인류학, 철학, 인간관계학, IT 분야' 등 대학기초교양 수업임

부모에게 추천하고 싶은 우리 대학 수업 사례

서양 모더니즘 명작과 순례, 부모되기, 결혼과 가족, 연애학개론, 삶의 재발견, 미학과 감성적 인간, 약과 건강, 빅데이터와 인공지능 세상, 소비자의사결정, 성공창업CEO특강, 언어로 보는 젠더, Communicative English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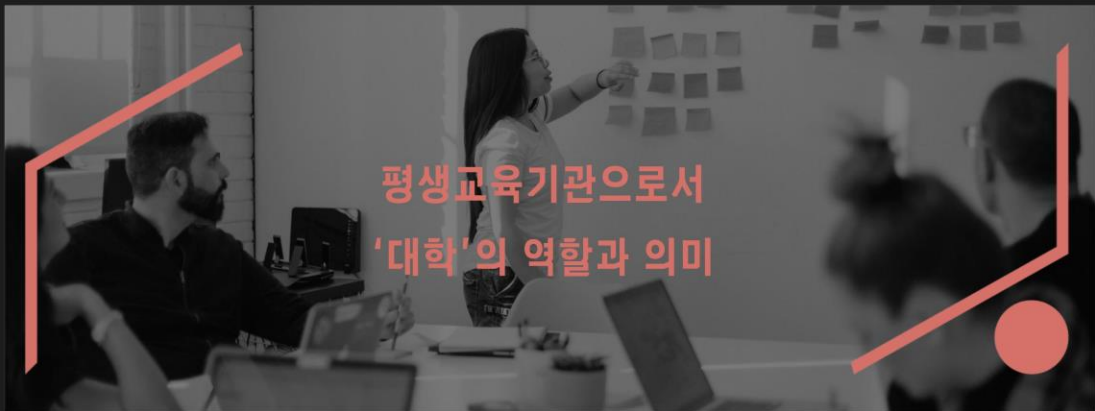
그 외에도 부모님 시대에는 없었던 대학의 특화 학과 수업(컴퓨팅 사고를 위한 소프트웨어 코딩, AR/VR영상제작), 생계를 위한 노력이 아닌 본인의 여가와 활력 등 삶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수업(패션디자인 전공, 영화와 클래식, 식품공학, 아는 만큼 들리는 고전음악), 평상시 부족한 기초상식 관련 수업(영어회화, 포토저널리즘, 금융학, 커뮤니케이션), 나이가 들어서도 할 수 있거나 평소 제2직업으로 꿈꾸셨던 분야에 대한 수업(심리치료 미술, 모의 창업 실습, 소비자유통, 유아교육과) 등을 추천함

추천하는 교육방법

부모님 세대에 익숙한 강의형 방식, 토론형/현장활동형 수업 순으로 높게 나타남. 대학생인 자신들도 부담을 느끼는 팀 프로젝트형이나 논문 연구 방법은 추천도가 낮았음. 추천 빈도로 보면, 강의형 수업 (32.4%), 토론형 수업 (28.2%), 현장활동(탐방)형 수업 (25.5%), 팀 프로젝트형 수업 (9%), 논문 연구 수업 (2.8%), 기타 '개인 프로젝트형 등'(1.4%)순임

추천하는 대학공간

도서관, 연구실, 실습실 등 학습공간에 대한 선호가 높을 것으로 예상함. 대학 생활을 즐겁게 누릴 수 있는 낭만이 있는 라운지 공간과 야외공간, 대학의 랜드마크 공간을 선호하실 것으로 예상함. 추천 빈도로 보면, 도서관/학습공간 (41.4%), 라운지/커뮤니티 공간 (26.2%), 야외(녹지)공간 (15.9%), 대학 랜드마크 공간과 조용한 아지트 공간 (13.8%), 푸드 공간 (4.1%) 순임



대학생들은 자신과 가까운 성인학습자 ‘부모’를 위해, 그리고 미래 대학 졸업 후 자신을 위해,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해주기를 기대하고 있다. 무엇보다 대학이 자신의 인생 마지막 학교이자, 가장 중요한 평생학습 경험을 제공하는 장이라고 여긴다. 졸업 후에도 대학이 변화하는 사회에 필요한 지식과 기술을 배우는 장을 제공하고, 대학시절 동아리처럼 자연스럽게 커뮤니티 형성 경험을 제공하기를 바란다.

졸업 후, 대학에 대한 기대



졸업 후 성인학습자 ‘나’를 위해, 대학에 바램

대다수 대학생 응답자가 대학이라는 고등교육기관에서 ‘100세 시대, 평생학습 시대’를 살아가며 필요한 교육을 지속해서 받을 수 있기를 바램. 자신 뿐만 아니라 자신의 부모에서도 대학이 성인 친화 평생교육 기관으로서 사회적 역할을 수행하기를 적극적으로 기대하고 있음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 역할 중의 가장 큰 장점은 ‘고도화된 그리고 전문적인 교육을 제공할 수 있다’는 점, 그리고 ‘대학이라는 기관에서의 소속감과 다양한 활동’을 꼽고 있음

“졸업한 후에도 내가, []하면 좋겠다”

“~[시대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새로운 지식과 기술을 탐구해야 할 때 믿음직한 대학에서 다시 학습을 할 수 있다면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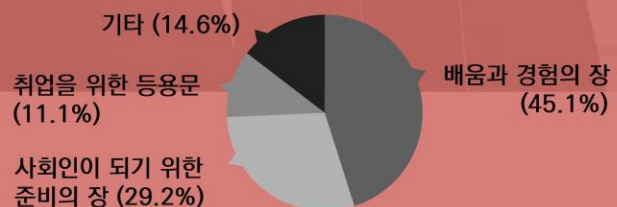
“~[다시 대학에서 수준 높은 양질의 교육을 통해 전문지식을 학습할 수 있다면 ~”

“~[다시 대학에서 동아리와 교우관계, 스터디 등 과거 대학시절처럼 자유롭고 격의 없이 관계형성을 할 수 있다]면 ~”

인생에서 대학의 의미

‘대학’은 지식과 정보, 그리고 기술 학습의 장이고, 다양한 사람과 문화를 경험하는 장, 시행착오가 용인되는 마지막 울타리로서 의미가 있다고 여김. 평생교육시대라고 하지만, 대학생들은 대학을 ‘삶의 마지막 교육기관’으로 생각함. 대학을 자신을 발견하고 나아갈 방향을 설정하는 곳으로 인식하는 한편, 취업을 위해 필수적인 관문으로 생각하기도 함

숫자로 나타난 ‘대학의 의미’ 순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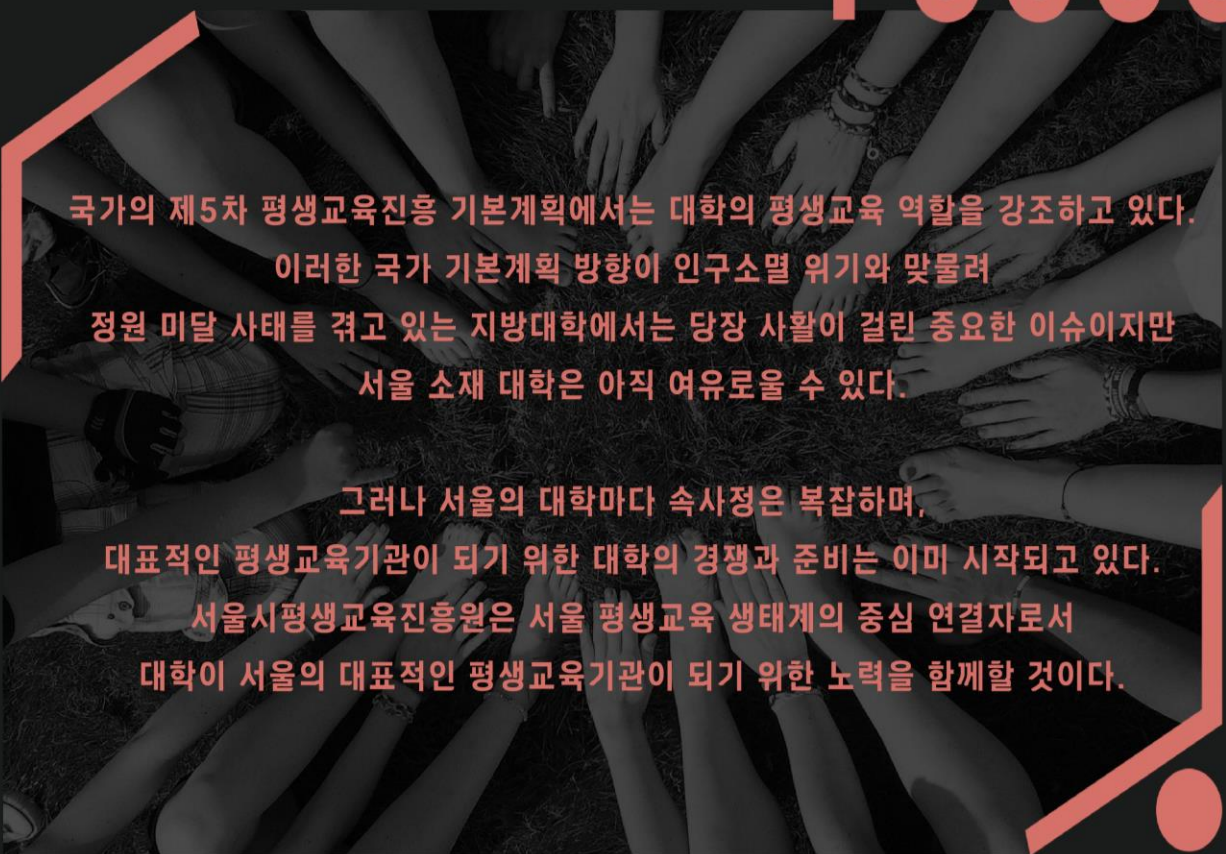
대학 자원이 성인학습자에게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지에 대한 단계적 로드맵 필요

이번 호를 통해 서울 소재 대학생들이 성인학습자를 위한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대학의 역할에 대한 기대가 높음을 확인함. 특히, 가까운 미래에 일반 성인학습자가 될 자신을 위해, 대학이 평생교육기관으로서 다양한 양질의 자원을 제공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음

대학의 자원이 한정되어 있지만, 대학생 자신과 가까운 성인학습자인 ‘부모’를 위해 대학이 제공할 수 있는 자원을 구체적으로 제안하고 있음. 이는 재학생들의 반발에 주저할 수 있는 일반 성인학습자 대상의 대학 자원 공유에 시사점을 제공할 수 있음

앞으로 대학은 단계적 로드맵을 가지고, 평생교육원 등 성인학습자 전담 대학부설 시설 외에도 일반 대학 자원이 지역의 성인학습자에게 어떻게 공유될 수 있을지 구체화해야 할 것임

FOCUS



국가의 제5차 평생교육진흥 기본계획에서는 대학의 평생교육 역할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국가 기본계획 방향이 인구소멸 위기와 맞물려
정원 미달 사태를 겪고 있는 지방대학에서는 당장 사활이 걸린 중요한 이슈이지만
서울 소재 대학은 아직 여유로울 수 있다.

그러나 서울의 대학마다 속사정은 복잡하며,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대학의 경쟁과 준비는 이미 시작되고 있다.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은 서울 평생교육 생태계의 중심 연결자로서
대학이 서울의 대표적인 평생교육기관이 되기 위한 노력을 함께할 것이다.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 소개

서울평생학습 이슈포커스는 주목할만한 평생학습 이슈를 선정하여 WHO, WHAT, HOW, WHY 4가지 카테고리에서 평생학습이 앞으로 누구를 위해, 무엇을, 어떻게, 왜 해야 하는지 나아가야 할 방향과 미래를 제안합니다.

* 이슈포커스는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이 진행한 정책연구, 실태조사, 트렌드·데이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됩니다.

위 자료는

대학내일 20대 연구소를 통해 서울시 대학생 144명을 대상으로 실시된 〈대학 평생교육 관련 인식 조사〉 분석 결과를 토대로 작성되었습니다.

작성 및 정리

김혜영 팀장, 김혜연 대리 (서울시평생교육진흥원 정책팀)



서울특별시평생교육진흥원
SEOUL LIFELONG EDUCATION INSTITUTE